



유재연
만두속

즐거운 대화

더운 여름에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지난 주 강원도 인제와 속초로 휴가를 다녀 왔어요. 강원도 여행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녹음이 짙은 산과 시원한 바다의 매력에 흠뻑 젖어 즐거운 여행을 하고 왔어요. 여행하는 동안 같이 가게 된 하린이 친구 가족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 중 많은 이들과나는 대화들 중에 마음에 남는 대화가 있어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희가 갔던 인제의 펜션은 산 속에서 노부부가 운영하고 계신, 조금은 오래된 펜션이었어요. 바베큐 불도 무료로 피워 주시고 커피도 직접 내려주시는 것을 보며 그분들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펜션에서 떠나올 짐을 정리하며 주인 아주머니와 우연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렇게 산속에 두 분만 계시면 적적하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긴 한데 심심할 것 같아요”

“(웃으시며) 아뇨, 전혀요.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몸이 여러 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제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혹시...?”

“네.. 저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저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 좀 그리고 하면.. 하루의 시간이 다가요. 아, 이리로 와 봐요” 라고 말씀하시며 아주머니는 동그란 작은 창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

는 아담한 기도실도 직접 보여주셨다.

“와.. 대단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신앙 선배님을 만나 다니... 저는 부끄럽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정말 은혜네요. 저는 신앙 수준으로 따지면 저 밑 계곡에 있다가 이제 중턱에 왔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많아요. 광야 인생이 거의 40년이었거든요. 그 긴 시간동안 저를 놓지 않고 시고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한 순간도 놓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얘기가 길어지네.. 이 곳은 여름도 좋지만 겨울 설경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 산봉우리 보이죠? 저 곳이 다 하얀 눈으로 덮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겨울에 꼭 다시 와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주머니와 이야기 하면서 오래전부터 사귀어 왔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즐거웠고 왜 진작 아주머니와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하며 아쉬웠습니다. 제가 하린 아빠와 대화 나누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진심^^) 그것만큼이나 설레고 즐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주머니 연세는 예순이 훌쩍 넘으셨고 젊으실 때 방송국 기자로 활동 하시며 텔레비전에 나오셨던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는 주제 하나로 일순간 하나가 되는 기쁨을 잠깐이나마 경험하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떠난 이후에도 저에게 말씀과 영상을 메시지로 보내 주시며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기쁨', '서로 은혜 받은 기쁨'을 이야기 하며 다시금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하는 즐거움. 그래서 예수님 걸으신 길에 선 동역자로 서로 힘을 부어주며 용기를 주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평생 이런 모임과 대화에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17-18)

배화교회

주보 제 2019-33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08.11



성령강림 후 제 9주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회 중 :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다함께 :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빛 되신 주 + 시선 / 우리가 꿈꾸는 나라 / 아름다우신

대표기도 권태성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옵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갈라디아서 5장 25-6장 10절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영석 목사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씨를 심다

찬양과 기도 기대 - 주 안에 우린 하나

축도* 김영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78명
헌금	십 일 조 김영건 서민욱 이아름 이동근 이은미 감사헌금 윤서진 배성경 주일헌금 강영건 권태성 김백준 김수현 김영석 홍병진 김용석 유재연 김택윤 박세연 박 준 박진성 송민천 김미소 송민혜 윤영미 이병홍 정우석 최명성 최영광 최인성 최정용 추세영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무 명



속회시즌 9
복음과 삶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공동체를,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배화칼럼니스트를 모십니다
문의: 송민혜 전도사

일상에서 은혜를 발견했을 때
성경에서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억해요.

여름물놀이 오늘 점심식사 후에 식당 옆 마당에서 초등부, 유치부의 물놀이가 있습니다. 권태성집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속회장소변경 오늘 '복음과 삶'으로 나눔하는 속회는 학생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2속(이복삶), 다음 주는 3속(복세평살)입니다.

• 대표기도

8.18	서광희
8.25	김미소
9.1	김선민

- * 홈페이지 : www.baewhach.kr
- * 인스타 : baewhach.kr
- * 유튜브 : 배화교회